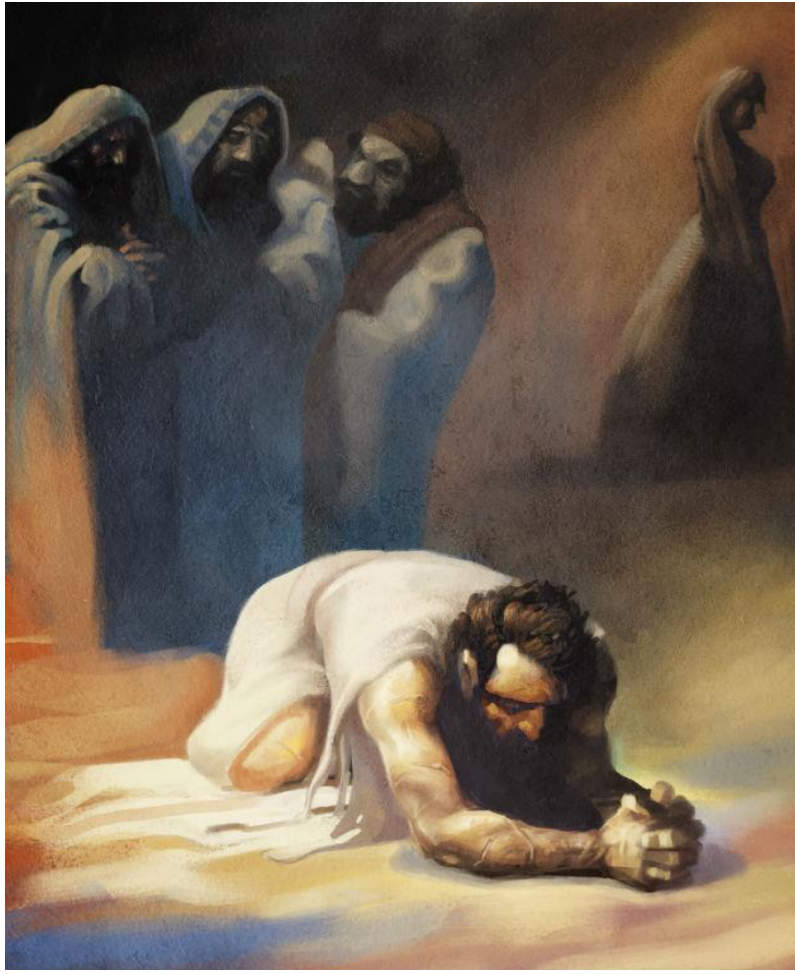


##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예배 예식서

2020. 11. 8. 11:28- / 프라하 교빌리시교회



### 일러두기

1.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련된 간단한 주일 가정예배 예식서입니다.
2.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의 정신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받으실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3. [○인도자/◎다같이] - 가족 중 한 사람이 인도합니다.
4. 찬양/묵도로 마음을 정돈하며 예배를 시작하고, 봉헌은 미리 준비된 함/용기에 합니다.

## 목도

### 예배의 초청: 시편 25편

-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1)
- ◎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2)
-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3)
- ◎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4)
-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5)
- ◎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10) / ◎ 아멘

## 여는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난 한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당신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그 길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을 밝히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더 온전히 빛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 아멘.

##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으로 다함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 ◎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 거기로 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 아멘.

## 감사찬송

○ 찬송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통53/새9) 함께 하겠습니다.

(통 53)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9

경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R. 4:24) 구원의 하나님: IRREG. 라살수, 1967  
 김정권(1914-1981) 보물으로

1.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2.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 하나님  
 3.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하시고  
 4. 주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주소서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 리 에 배 를 받아 주 시옵 소 서 아 멘

성경 읽기

○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23장 8-10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 오리라 / ◎ 아멘

## 말씀 나눔

○ 다음 질문들을 따라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봅시다.

1. 고난 속에서 옴이 찾아 헤맸으나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8-9)
2. 그러나 옴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신다고 고백합니까? (10)
3. 또한 그 모든 고난이 끝난 후에 그가 어떻게 되리라 고백합니까? (10)
4. 예배자료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며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5. 아래의 설교문을 나누어 읽고, 각자 조용히 1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옴은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옴이었지만, 너무 힘들 때면 반항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고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전에는 바로 옆에 계신 것만 같았는데, 어떤 일인지 이제 그분은 철저히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았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텐데, 그분이 뭔가 일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모습으로, 너무나 낯선 모습으로 그분은 일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들은 옴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런 벌을 내리셨겠지.. 잘 생각해봐.. 진심으로 돌이키면 벌을 거두어 주실꺼야.." 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완벽히 의롭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들보다 죄가 많아 그런 벌을 받는다고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껏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고자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옴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 놀라운 것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또 반항심과 근심 속에서도, 옴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이르는 길을 나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신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알고 계시며 결국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옴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왜?'라고 묻게 됩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왜?'라고 묻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이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할 시험문제는 아닙니다. 설령 어떤 상황이 우리 잘못의 결과로 주어졌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렘29:11).

○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거리에서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경(요9:1-7)은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 흥측한 물골로 길을 물어가며 연못까지 가는 일은 분명 믿음과 수고를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의 끝에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 이처럼 고난의 상황 속에서 ‘Why?’보다 더 필요한 질문은 ‘What?’일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지 생각해보고, 신뢰와 인내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지금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분의 때(Kairos)에 놀랍게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 결국 끝은 옵니다. 옴의 고난도 결국 끝이 났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그 고난이 누구 때문에 생겨났는지에 대한 설명도 아니었고, 옴이 그 시험에 몇 점으로 통과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후면으로 밀려나고 한 가지 진실만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고, 그 어떤 불행도, 그 어떤 악의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더 온전한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될지언정 결코 최종 결론이 될 수는 없다는 것. 마침내 하나님께서 옴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옴은 할 말을 잃고 스스로 입을 가렸습니다.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옴42:5)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옴이 한 일은 견딘 것이었습니다. 두렵게 하는 어둠 속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견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고 열림과 견딤 속에서 선물로 주어집니다.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리두심은 그 사이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어쩌면 그 때가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가장 활발히 일하시는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희망의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옛 틀 안에 모든 걸 집어넣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주실 더 온전한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 **찬송과 봉헌**

○ 찬송 <내 맘이 낙심되며>(통406/새300)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중에 봉헌하겠습니다.

# 300

# 내 맘이 낙심되며

(통 406)

J. B. Evans, 20th Century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위음 주심은  
(말후 4:17)

HIS GRACE IS ENOUGH: 7.6.7.6.D.REF.  
J. B. Evans, 20th Century

보통으로

1.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2.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버릴 때 주내게 속삭  
3. 빈민이가 득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의 곁에

오사위로 해주시네 가는길 감감하고  
이며 새희망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서  
오사위로 해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괴로움 많은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후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쉬운 기타코드(Capo=3rd): Bb · G F7 · D7 C7 · A7 Eb · C G7 · E7

Just when I am disheartened

은혜와 사랑

## 중보기도

- 다함께 기도합니다.
- 사랑의 주님,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치유를 베푸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삶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도움의 길이 끊긴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섬기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이 무력한 상황 속에서 그 동안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각 가정에 함께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켜주시며, 이 고난의 시간을 유익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이 교빌리시교회와 함께하시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 조심스럽게 진행해가는 일들을 주관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세상의 모든 당신의 교회들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당신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열정으로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당신의 평화와 은혜를 내려주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이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악에서 구하소서 /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아멘.**

### 영광찬송

- 찬송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 선한 능력으로

Kang Score

Words & Music by  
Bonhoeffer Dietrich & Siegfried Fietz

Chords: D, A/C#, Bm7, D/A, G, G/A, D G/D, D, D, A/C#, Bm7, D/A, G, D/F#, Em7, G/A, D, A/C#, Bm7, D/A, G, G/A, A7, D G/D, D, D, A/C#, Bm7, D/A, G, D/F#, Em7, G/A, D, A/C#, Bm7, D/A, G, G/A, A7, D, G/A, A7, D, A/C#, Bm7, D/A, G, G/F#, Em7, G/A, A7, D, A/C#, Bm7, D/A, G, G/A, D G/D D

Lyrics:  
 1.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 나 그대들과 한해를 여네  
 나간 허물 어둠의 날 들이 -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2. 지게서 밝히 신작은 초분이 -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3. 주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4. 이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 약속의 구원 을 이루소서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다 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 당 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 하루 또 하루 가능 새로워 -

## 교회소식

1. 서로를 축복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2.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가 11월 20일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다음 주일(11.15)에도 교회에서의 공동예배는 없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예배 자료를 참고하셔서 각자 최선의 길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3.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타인에 대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각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누구든 걸릴 수 있고 아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지침을 따라 책임있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올해 보흐니체병원 환우들을 위한 음식바자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주문방식 음식/물품 바자회>(+비대면아트워크숍)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함께 수고해주시는 교우님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취합된 정보는 담당자 분께 전달되었으며, 이번 주간부터 시작될 온라인주문 참여 방법을 조만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복과 파송

- 히브리서 10장 35-39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 ◎ **아멘.**
-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